



YOON HOJUN

- 2015 M.F.A. · Ceramics · Hongik University [Seoul]
 2013 Bronze · The 10th Ceramic Arts Award of Korea [Incheon]
 2013 Special · The 32th Seoul Contemporary Ceramic Arts Contest [Seoul]
 2021 Indulging in ceramics ; PLAY, Gallery Meme [Seoul]
 2015 Indulging in ceramics, E-HU gallery [Seoul]

Public Collection

- 2019 Östasiatiska Museet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ational museum) [Stockholm, Sweden]

左 «Celadon Thurbile with escaping Rabbit» 2021
 39 x 32 x 42 cm, Celadon, Reduction firing 1250 °C

ユン・ホジュン

- 2015 弘益大学産業美術大学院陶芸専攻 [ソウル]
 2013 大韓民国現代陶芸公募展 銅賞 [仁川]
 2013 ソウル現代陶芸公募展 特選 [ソウル]
 2021 個展「陶磁遊戯 ; PLAY」, ギャラリー ミーム [ソウル]
 2015 個展「陶磁遊戯」, ギャラリー イーフ [ソウル]

Public Collection

- 2019 世界文化博物館・東アジア博物館 [ストックホルム, スウェーデン]

左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an escaped tiger and a magpie on it» 2021
 51 x 31 x 47 cm, Grogged clay, Blue painting, Oxidation firing 1250 °C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を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ユン・ホジュン 展 / AH with JOMON in Japan 願いを言ってみて

主催：丸沼芸術の森
 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048-456-2533 FAX: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ユン・ホジュン(ホームページ)
<http://www.yoonhojun.com>

左 «Ah» 6 x 5.5 x 7.5 cm, Celadon, Reduction firing 1250 °C



AH with JOMON in Japan 願いを言ってみて TELL ME YOUR WISH

Marunuma Art Park
 2022 Artists-in-residence Program

2022年11月11日(金) - 13日(日)



《Jomon No.1 恥ずかしい Embarrassing》
15 × 10 × 22 cm, Coloring, Pit firing 1,000℃



《Jomon No.2 ボリュ-ムヘア Volume Hair》
12.55 × 11 × 17 cm, Pit firing 1,000℃



《Jomon No.3 脱出 Escape》
Installation 40 × 34 × 16 cm, Coloring, Pit firing 1,000℃



《Jomon No.4 お疲れ Exhausted》
13 × 14 × 20 cm, Coloring, Pit firing 1,000℃



《Jomon No.5 オランピア Olympia》
23 × 29 × 18 cm, Coloring, Pit firing 1,000℃

2022

尹豪浚の視点

ながいコロナ禍の影響下、2年ぶり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は新設されたアトリエとともに再開となった。天井高のある手垢の全くついていない空間の隅っこに小さなテーブルを設置し、少し緊張気味に制作をしている尹豪浚(ユン・ホジュン)が今回のアーティストだ。彼の作風は繊細でいて、ユーモラス。また、伝統的でありながら現代の遊戯に溢れている。

大学でプロダクトデザインを学び、卒業後に展示ディスプレイ会社へ就職した。この仕事では、どんなに心血を注いでつくった作品でも短期間のうちに消費されてしまうというジレンマがつきまとう。そんな悩みを抱えつつ1年ぐらいで職を辞する事になる。その後、カラーリストの仕事に携わりながら、子どもの造形教室で小学生を教える。さらに近所の陶芸工房に通いながら器を制作し、そこで今に通じる技術を得る。職を辞してから9年後に弘益(ホンイク)大学大学院陶芸専攻へ進学し、作家のキャリアをスタートすることになる。

大学院での制作ではその造形の中に人物像が登場してくる。陶でできた複数の人物が飛び込み台からおっこちてまた土に戻ってゆくといったストーリー性の強い作風である。人間の死生観、または自然の循環を思わせると同時に尹自身の身体的な体験を取り込んだ彫刻表現となった。学内での評価はあまり良くなかったようだが、現在の作風を語る上で重要な作品となった。

尹の作品には裸の子供たちが登場してくる。この子供は「Ah(我)」とよばれ、尹の分身である。歴史的な陶芸作品と戯れる「Ah」は、一見すると自由奔放で無防備な世界の住人である。一方で、美術史という父性に対し、じゃれつきながら甘え、叱られ、抱きしめられることによって成長してゆくドラマのようでもある。その監督である彼の視線は優しくも厳しい。

今回、丸沼で発表されるモチーフは縄文時代に作られた土偶である。世界でも類を見ない独特な造形に対して「我」はどのようなアプローチをしてくるのであろうか。尹豪浚監督の采配に期待したい。

東京造形大学教授・彫刻家
大橋 博

윤호준의 시점

유난히 길었던 코로나의 영향으로 2년 만에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가 신설된 스튜디오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높은 천장에 손때하나 없는 새로운 공간의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다소 긴장한 듯 한 모습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윤호준이 이번 아티스트이다. 그의 작품은 섬세하고 유머러스하다. 또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의 유희가 넘쳐흐른다.

대학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전시 디스플레이 회사에 취직했다. 이 일을 하면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라도 단시간 안에 소비되어 버린다고 하는 딜레마가 항상 따라다녔다. 그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뒤이어 색채연구소 등 다양한 경험을 거친 뒤 미술학원에서 초등학생을 가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때 근처의 도예공방에 다니면서 그릇 등을 만들며 기초가 되는 도예 제작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그 후 첫 직장을 그만 둔지 9년 만에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과에 진학하여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대학원 시절의 작품에서는 조형표현에 인물상이 등장하게 된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복수의 인물들이 다이빙대에서 추락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다소 스토리성이 강한 작품이었다. 인간의 생사관 또는 자연의 순환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윤호준 자신의 신체적인 체험을 담은 조각표현이었다. 교내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작품(作風)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윤호준의 작품에는 별거벗은 아이들이 등장한다. 이 아이는 [아(我)]라고 불리며 윤호준의 분신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도예작품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아]는 언뜻 보면 자유분방하고 무방비한 세계의 주인인 듯하다 한편으로는 미술사(美術史)라는 부성(父性)에게 착 달라붙어 장난치며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때로는 귀지람 후 안아줌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드라마와도 같다. 그것의 감독인 윤호준의 시선이 따뜻하면서도 엄격하다.

이번 마루누마 예술의 숲에서 발표되는 모티브는 일본의 조몬시대에 만들어진 토우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조형에 대하여 [아]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윤호준 감독의 지휘를 기대해 본다.

동경조형대학교 교수 · 조각가
오하시 히로시

